

문제는 과반 ... 문재인 '불안한 대세론'

현장과 시각

야유·비난 난무한 민주경선

민주당 대선후보 광주·전남 경선 文, 과반표 못얻어 결선투표 여지 孫, 당원표 앞서고도 모바일 뒤져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순회경선도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피해야 하는 못했다.

문 후보는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지만 2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완승, 향후 경선에서도 대세론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과반 득표에는 실패,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

▷대세론 유지=문 후보는 전북과 경남에서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8연승 가도를 달렸다. 문 후보의 광주·전남 득표율은 48.46%, 이는 전북 37.54%, 경남 45.09%보다 높은 득표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광주·전남 출신 후보가 없는 상황여서 상당수 부동표가 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표가 대세론에 휩쓸린 것이다.

반면 전북과 경남에서는 그 지역 출신인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선선했기 때문에 문 후보가 광주·전남보다 낮은 득표율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선투표 기나=문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에서 승리했지만 득표율 48.46%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누적 득표율 면에서도 46.81%로 과반 획득에 실패, 현재로서는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향후 경선 분위기다. 우선 부산과 대구·경북 등에서는 문 후보가 과반 득표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남지역의 경우 선거인단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여서 그 표로 누적 득표율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수도권 경선이 결선투표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은 광주·전남 경선 승리로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경우 수도권에서 완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선전, 결선투표를 실행시키겠다는 각오다.

▷당심과 괴리 심화=광주·전남 경선에서도 당심은 손학규 후보에게로 기울었지만 모바일 표심은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손 후보는 대의원이 참여하는 순회투표에서 375표로 179표에 그친 문 후보를 200여표 차로 압도했다.

또 당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투표소 투표에서도 2182표로 1385표를 얻은 문 후보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손 후보는 선거인단 대다수를 차지하는 모바일투표에서 1만표 이상 뒤져 1위 자리를 문 후보에 내줬다.

▷반전은 없나=순회경선은 절반 이상 진행됐으나 선거인단 수를 고려하면 30만여명이 이날까지 투표를 마쳐 전체 경

선은 3분의 1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수도권 선거인단 수가 많은 것이다. 때문에 비문 후보들은 이 수도권 경선을 노릴 수밖에 없다.

특히 2위를 달리는 손 후보는 수도권 출신인 만큼 수도권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더욱이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이날 대선전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안 원장 변수'가 민주당 경선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세론이 굳어져 가는 상황에서 1,2위 간 역전은 불가능하겠지만 문 후보 득표를 최대한 저지할 경우

■ 민주당 통합당 광주·전남 경선 득표 현황 (후보는 기초선)

총득표수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문재인
광주·전남	2,435(3.48%)	11,018(15.75%)	22,610(32.31%)	33,909(48.46%)
누계	17,340(8.47%)	38,345(18.78%)	53,113(25.95%)	95,813(46.81%)
모바일 투표	2,105	9,546	20,053	32,345
투표소 투표	14,651	34,408	47,758	91,471
광주·전남	200	1,257	2,182	1,385
누계	2,175	3,238	4,280	3,590
현장투표	130	215	375	179
누계	514	789	1,075	752

※ 광주·전남 총 선거인단 13만9276명 중 유효투표 6만9972명 기권투표율 50.2%

결선투표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안 원장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민주당 경선이 안 원장 프레임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표심은...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통합당 광주·전남 경선이 6일 오후 광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원과 지지자들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말 많고 탈 많은 '모바일 오류' 논란

민주당 통합당 지도부가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모바일투표 오류 논란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학규·김두관 후보는 지난 5일 '모바일투표 전화 5회 시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철저한 검증과 오류 수정시까지 투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전날 밤과 6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5회 시도' 논란이 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철저한 검증 요청에 응하겠다는

경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두 후보의 요구 중 철저한 검증은 수용하겠지만 당장 이날 예정된 광주·전남 개표 중단과 선관위원장 사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도부가 '5회 시도'가 논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발신주의를 채택한 당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손·김 두 후보 측은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유권자가 투표 참여 전화를 5번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당규에는

5회 수신이 아니라 5회 발신을 기권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두 후보 측은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경선표를 둘러싼 향후 대응 방향에는 약간 다른 반응을 보였다.

손 후보 측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손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의 뿌리인 광주·전남의 민심, 당심은 어디 가고, 특정세력의 정체를 모방심이 민주당을 이렇

게 처참하게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캠프 관계자도 "지쳐서 할 말도 없다. 후보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지도부의 배짱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검증은 검증대로 진행하되 경선을 문제도 더 이상 경선관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반대로 모두가 죽는 길을 선택했다"며 당 지도부를 겨냥한 뒤 4

명의 후보와 이해찬 대표가 만나는 4+1 회동을 제안했다.

정세균 후보 측은 손·김 후보의 문제제기와 지도부의 대응방식 모두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경선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후보는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또 문 후보는 이날 연설회에서 "민주당 경선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100만 국민이 정체불명의 모바일 세력이 됐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도부, 검증은 하되 경선 일정 예정대로 진행
孫·金 "투개표 중단" ... 丁·文 "경선 중단 안돼"

PAR3 골프장, 연습장 매매

입지 | 화순 전남대 병원 3분거리

규모 | 전체부지면적 146,411㎡ / 사업승인면적 130,718㎡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40타석 비거리 170yd

편의시설 | 클럽하우스 1,552.80㎡ (라카를, 샤워실, 레스토랑)
실외연습장 1,654.92㎡ (라카를, 강의실, 골프샵)
주차공간 : 160대 주차

특이사항 | 감평가 82억원 / 매매가 65억
現회원 1,000명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문의처 010-9349-5555 · 062-446-5000

화순PGA (전대병원 뒷편)